

# CIR·연체율 낮춰야... 경영 효율화, 리스크 관리 절실

(영업이익경비율)

## DGB금융 황병우 號 과제는

현 회장과 보폭 맞춰온 내부인사  
시중은행·미래 전략 탄력 기대  
4대 금융주주와 정면승부 어려워  
전국 영업망 확대 최우선 추진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최종 선정됨에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황 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되면서 이변이 없었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황 행장을 단독으로 추천한 배경은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과 전략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DGB금융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안정성을 위해 김태오 현 DGB금융 회장의 후계자로 평가 받는 황병우 행장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황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결정되면



황병우 DGB금융 차기 회장 후보자(현 대구은행장) /DGB금융

서 DGB금융의 현행 과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황 행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주요 안건에 직접 참여해 온 만큼 차기 사령탑 결정을 앞두고 느슨해졌던 현안 및 미래 과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금융권에서는 황 행장의 회장 취임 이후 DGB금융의 최우선 과제로 시중

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영업망 확충을 꼽았다.

DGB금융은 내달 은행부문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영업 구역 제한이 사라진다. 그러나 4대 금융주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와의 자산규모 체급 차이가 커 영업점 영업이나 금리 등을 앞세운 정면 승부는 어렵다.

DGB금융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디지털 플랫폼 개인 금융, 맞춤형 기업 금융 등 영업 방식 다각화를 통해 전국 단위 '니치마켓(틈새시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금융에서는 대구은행 인터넷 뱅킹 앱 'i뱅크' 및 외부 핀테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영업 확대에 나선다. 자체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파우렐을 통한 자체 역량 강화도 이어간다.

기업 금융 부문에서는 전국단위의 맞춤형 기업 금융 제공을 위해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제1금융권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DGB금융의 향후 과제로는 경영 효율화 및 리스크관리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DGB금융의 영업이익익비율(CIR)은 47.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4대 금융주주의 평균은 41.6%였다. 시중 지주와의 경쟁을 위해선 조직 간소화·영업 효율화를 통한 비용 감소가 요구된다.

대구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61%를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인 0.25%(KB 0.22%, 신한 0.26%, 하나 0.26%, 우리 0.26%)를 웃돌았다. 연체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이 늘어나고, 영업 확대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DGB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에 대한정보 등의 활용도를 높여 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지역별로 현지 인력 채용을 통한 맞춤형 심사 체계도 함께 도입해 다방면에 걸친 건전성 및 연체율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하나은행-파운트투자자문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협력

하나은행이 파운트투자자문과 퇴직연금 상품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운트투자자문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해 투자일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이다.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삼성화재 순익 1.8조 '1위'... 메리츠화재 1.6조 '맹추격'

1-2위 격차 2500억 수준으로 좁혀  
DB손해보험, 1조5367억 3위 기록

지난해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메리츠화재가 매섭게 성장하면서 DB손해보험을 제치고 2위에 올라 향후 업계 1위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실적표가 나왔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8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11.7% 늘어난 2조4446억원으로 사상 이래 첫 2조원을 돌파했다.

메리츠화재는 DB손해보험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랐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D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21% 가량 줄어든 1조5367억의 순이익을 기록해 메리츠화재에 2위 자리를 내줬다. 현대해상은 37% 급감한 805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75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실적만 보면 메리츠화재가 순익 2787억원을 기록해 순익 1755억원을 거둔 삼성화재를 제치고 3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호실적 행진에 힘입어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와의 순이익 격차를 2022년 3700억원에서 2023년 2500억원

수준으로 좁혔다.

메리츠화재는 "호실적 지속은 업계의 출혈 영업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신계약의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우량 계약 중심의 매출 성장에 집중한 덕"이라며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 본업 경쟁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반기 호실적을 이어오던 삼성화재는 4분기 순이익이 약 47% 감소하면서 주춤했다. 삼성화재의 4분기 보험순이익은 192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또한 장기보험순이익은 전년 대비 30.6% 급감한 23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메리츠화재가 장기보험 순이익을 30% 이상 끌어올린 것과는 대비된다.

메리츠화재의 급성장으로 삼성화재와 향후 업계 1위 자리를 둔 경쟁이 치

열해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2025년까지 업계 1위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종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최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전체년 1등 목표'를 신년목표로 내세우고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격차 실현'으로 업계 1위는 물론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양과 질,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통한 초격차 실현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2024 추진 전략으로 신영역 개척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부문 글로벌 진출로 시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 분양시장 '휴식기' 내달 8466가구 공급

2001년 이후 최저 물량

아파트 분양시장 성수기인 오는 3월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청약홈 개편으로 3주(3월4~22일) 동안 분양시장이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8466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동월 기준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4651가구) ▲대전(1962가구) ▲부산(922가구) ▲인천(732가구) ▲서울(199가구) 순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물량이 전무하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3곳 중 '복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I (1744가구)', '지체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1209가구)' 등 2곳이 경기 물량이다. 서울은 '\*[취재] DGB금융, '황병우'호 출항까지 한 달...과제와 현안은?(승진)라(199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대전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1213가구)',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터로(749가구)'가 분양한다. 이밖에 부산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B3(507가구)',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415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늦어지는 금리인하... 저축은행, 상반기 보릿고개 넘는다

여신잔액 감소로 수신경쟁력 약화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 방안 분수령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저축은행권의 선택이 복잡해졌다. 여·수신을 모두 줄여 수익성이 악화한 만큼 상반기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최근 한국은행은 9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 3.5%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아직 물가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밀리고 있는 만큼 속도를 늦출 것이라 시각도 나온다. 빨라야 오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자 저축

은행권은 올 상반기 먹거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대출문턱을 높이면 여신잔액이 크게 줄었다 때문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317조3872억원이다. 같은해 1분기(343조7150억원) 대비 약 26조3300억원(7.65%) 감소했다. 2분기와 3분기 또한 감소세를 유지했는데 각각 332조4060억원, 326조0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신잔액이 줄어 들면서 수신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 은행권과 예금금리 격차를 0.1%포인트(p)도 벌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금리 상단은 연 4.10%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다.

반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과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다. 두 상품 모두 연 4.05%의 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상단과 0.05%p 차이에 불과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안 나가니 수신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며 "단 이런 축소흐름이 장기화하면 결국 사업규모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부실채권(NPL) 매각 방안을 반등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F&I)로의 NPL 매각에 눈독을 들일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개인사

업자 NPL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저축은행권의 개인사업자 NPL 매각처가 새출발금융으로 한정되면서 가격 입찰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NPL매각을 서두를 것이라 입장이 나온다. NPL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면 그동안 쌓아놓은 충당금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다. 다만 업권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해 손해가 발생했던 저축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가 더 건강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연체율 해소를 통해 쌓아놓은 충당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